

고흥 '거금에너지테마파크' 마무리 공사 '착착'

30일 준공...사업비 680억 전액 민자 유치 폐석산 부지 국내최대 태양광발전소 설치

고흥군이 폐석산 부지의 환경 복원 차원에서 추진 중인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오는 30일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30여년간 20여개 석산업체가 개발해 황폐화되었던 금산면 어전리에 위치한 폐석산 부지 55만8810㎡에 국내최대 규모인 25

MW 태양광발전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680억원의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을 유치로 마련됐으며, 석유고갈 등에 대비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투자자가 20년간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20년 후 고흥군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군 소유인 부지

에 대한 임대료는 20년간 연 평균 2억 5000만원으로, 발전시간 등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또 20년 후 군에 기부채납 될 경우 연 평균 60억원에서 100억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량이 고흥군 전체 전력소비량의 10%를 점유하게 되면서 군의 에너지 자립화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과 연계해 천혜의 거금대 자연경관, 거금대교와 연계한 '숨 쉬는 돌 공원' 조성과 군의 50% 에너지 자립 및 연 500억원 군 세수증대를 위한 '고흥 솔라 505프로젝트' 등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지홍기자 gjju@



해수부-여수시 파트너십 협약 해수수산부와 여수시 등 전남지역 연안 소재 지자체들이 10일 오후 파트너십 형성과 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지중해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 제공)



형형색색 황홀한 순천하늘빛축제 정원박람회 한창인 순천의 밤하늘을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수놓은 '순천하늘빛축제'가 지난 8일 개막, 3만 2500여 명의 인파가 찾아 곳곳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순천시는 국가 전력난 속에 빛축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주말에만 점등하기로 하고, 점등시간도 2시간으로 줄였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8國 68개 합창단 오늘부터 7일간 여수세계합창제

세계의 하모니가 여수에서 울려 퍼진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바다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주제로 한 2013여수세계합창제가 오는 11일~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여수 예음마루에서 막을 연다.

이번 경연에는 전 세계 8개국 68개 합창단 총 2200여 명이 참여, 단일 합창제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크게 경연과 축제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청소년합창, 민속&흑인영가 가스펠 합창, 동성합창, 혼성합창, 팝&재즈, 종교음악, 국제합창 등 7개 부문을 놓고 각 팀들이 자유를 겨루게 된다. 이번 경연에 걸린 총 시상금은 1억4500만원. 시상에는 그랑프리 1팀, 금상 6팀, 은상 7팀, 동상 14팀 등 총 28개 팀이 수여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구례에 15년만에 새 아파트 신축

봉남리에 172가구 착공

적은 인구에 따른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15년간 아파트 신축이 없었던 구례군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 인구가 2만7000여명에 불과해 분양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지난 1998년 S아파트를 끝으로 아파트 건립 사례가 전혀 없던 구례군에 최근 S건설이 내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아파트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구례군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문화 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건립을 타진, 지난 달 S건설과 구례를 봉남리에 '구례 산

이고운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협약까지 맺었다.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 3개 동으로, 전용면적 67㎡ 120가구, 84㎡ 52가구 등 총 172가구로 구성됐다. 아파트 견본주택은 지난달 말 문을 열었고 분양 실적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아파트 신축을 꺼려 주민들의 주거 문화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며 "신축 아파트는 섬진강 조망권에 다 주변에 군청, 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학교도 좋아 입주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동호기자 동부취재본부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토지 이용현황 실태파악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경제자유구역 인근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민간이 취득한 99필지 13만 6000㎡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두 달간 토지 이용현황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주요 개발사업에 관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과 탈법행위를

근절해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사항목은 토지거래 허가 시 소유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에 맞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 할 방침이다. 또 허가 받은 후 방치 또는 전매 여부, 임대나 위탁영업을 한 불법행위 등도 조사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선샤인 광양 취업·창업박람회' 13일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시가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3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13 선샤인 광양 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포스코 외주파트너사 포스코 휴먼 등 7개 기업을 비롯해 광양시 소재 우량기업 21개사가 참여, 현장면접을 통해 107명을 채용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SNNC, (주)포스하이메탈 등 포스코 계열사와 (주)포스플레이트 등 사회책임기업과 마을기업 등도 참여해 기업 홍보와 취업예정자를 위한 컨설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생산품 전시 및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 밖

에도 ▲창업 상담 ▲무료 번리 상담 ▲직업적성 검사 ▲마리스타 시연·시음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광양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람회 참여업체 명단을 미리 확인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행사 당일 참여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전북

부안 해풍마늘 수확...100억 소득 기대

부안군은 부안 해풍마늘(사진)이 지난 7일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부안 해풍마늘은 '농가소득 5000만 원 5000호 육성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를 시작해, 현재 재배면적은 191ha로, 부안군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안 해풍마늘 재배품종은 난지형 마늘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서마늘이 전체 재배 면적중 18%를 점유하고 있다. 부안 해풍마늘의 특성은 청정 부안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육질이 단단해 무르지 않으며, 재

배시 유기 유향을 사용 단맛과 향이 강해 대도시 주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부안 해풍마늘은 올해 '부안 해풍 마늘'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완료한 바 있다. 부안 해풍마늘은 이달 말부터 산지 직거래 장터인 보안 청자전시장 직거래 장터, 변산 대명콘도 앞 직거래 장터에서 구매 할 수 있으며, 7월말부터 부안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부안군은 부안 해풍마늘로 100억원의 농가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재배면적을 300ha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남원시, 서울강서교육청 교장단 팸투어

수학여행 유치 MOU 체결

남원시는 10일 서울 강서교육청지 원청 소속 교장단 팸투어를 진행한 뒤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장단 팸투어단에 참가한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77명이 지역 대표적 관광지 관람무원과 춘향테마파크를 답사하고 '전라북도의 문화

와 역사'에 대한 특강을 들은 뒤 자연스럽게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강서교육청 소속 사정담당사 우선 지원, 체험정보 제공 및 상담을, 강서교육지원청은 수련 활동 및 체험 활동 적극 권장 등으로 남원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지리산권의 자연자원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순창농요금과들소리 공연 전통 농경문화인 들녘의 소리를 재현한 '영호남과 함께 하는 제11회 순창농요금과들소리 현장공연'이 지난 9일 금과들소리전수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공연은 문화교류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4호 영남고성농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경이들소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담양우도농악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전통쌀엿·쌍치블루베리협동·동고마을 영농조합법인

순창군 마을기업 3곳 확정

순창군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마을단위 기업은 마을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군은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아 3곳을 확정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6500만원(50%)과 도비 1950만원(15%), 군비 4550만원

(35%) 등 1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이 예산은 마을기업 시설 구축과 장비 구입 등에 쓰인다. 사업대상은 순창전통쌀엿, 쌍치블루베리협동, 동고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3곳이다.

이미 청정 동계 지역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순창전통쌀엿은 이번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쌀엿 제조에 필요한 시설구축과 각종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쌍치 블루베리도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당도높은 지역 특산물로 전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어 이에 따른 껌 제조기와 농산물 선별기 등 가공제품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을 구입해 농가소득을 더욱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동고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도 친환경모시 및 병동시설 설치를 통해 친환경을 유지시켜 도시민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소규모 수작업에서 벗어나 최신설비를 갖춘 대규모 시설로 가공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현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지원사업으로써 마을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참여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서울 롯데백화점 출시전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이 오는 14일 서울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명품수박 4호' 출시전을 개최한다. 14일 오후부터 16일까지 3일간 북부라, 장어, 수박 등 고창군 우수 농특산물 특별 판매전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수도권 소비자, 노원구 여성단체회원, 출향인사, 수박유통전문가 등 700

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세계 희귀 수박 및 조각 전시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된다.

이번에 출품되는 명품수박은 생물관 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탐과채 단지, 명품수박단지 등 31ha에서 생산된 고품질 수박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부안군 소비자 초청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부안군은 지난 8일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하서면 석상마을에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하서 미래농업조합법원에서 주거래 소비자를 위해 마련했

으며 도·농 교류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버 모내기, 밀대 피리 만들기 등 밭밭체험, 오디 따기, 양파캐기 등이 마련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전주시보건소 독거노인·질환자 폭염예방교육

전주시보건소는 보건소 내 방문보건센터에 등록된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5985가구 중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고령자 등을 상대로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예방 9대 건강수칙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보건소 측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도록 방문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폭염관련 질환을 일으킬 경우 즉시 119나 1339에 구급요청을 하도록 개인별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전주=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남원 사랑' 캠페인 선포식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남원시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남원을 사랑하자' 연중관계인 선포식 및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남원시장, 김성범 남원시의회의장, 서병철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장, 도의원, 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칭찬하기 운동, 학교폭력근절,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화합과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기념행사가 끝난 뒤에는 미니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남원=백선기자 bs8787@